

통도사 본말사 연합신도회 사무실 개소... 각종행사 주관

교구 본사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6일 창립된 통도사(주지 원판) 본말사 연합신도회(회장 장복만)가 17일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통도사 본말사 연합신도회는 서울, 부산, 양산, 울산, 마산 등지의 130여 본말사에 등록된 2만여명의 신도를 대표하는 기구로 통도사의 크고 작은 행사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통도사 본말사 연합 신도회는 앞

으로 사무실에 상근 직원을 두고 신도회가 조직되지 않은 말사를 파악하고 조직을 이끌어 내는 한편, 연합신도회 전체 모임, 신도회 임원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통도사 포교국장 오십스님은 "전국 6개 도시의 말사 신도회의 통합과 화합으로 통도사의 발전은 물론 지역 신도회 활성화의 중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문화유적강좌 3월 개최 신라문화원 시니어클럽

경주 신라문화원 시니어클럽은 문화유적 강좌를 3월 5일 개최한다. 4개월 과정으로 주2회 진행될 신라문화원의 문화유적 강좌는 2개월은 신라문화원 강의실에서 전문 강사들의 강좌가, 나머지 2개월은 경주일원에서 현장답사로 진행된다. 강좌를 수료한 시니어들은 유급 포

는 자원봉사로 경주지역의 문화유적 안내를 담당하게 된다.

문화유적강좌는 5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교재비를 제외한 참가비는 무료.

신라문화원 진병희 원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시니어들이 문화 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주시니어클럽 전화 054775-1950

박원구 기자

경북 전통사찰·고분·탑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

경상북도가 최근 전통사찰과 탑, 성곽, 고분 등의 중요문화재 수리자료인 <문화재 수리보고서>를 발간했다. 총 5천여만원 예산을 투입,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에

는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2년간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총 220건의 사찰 등 지방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상세한 수리내용과 함께 설계도면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수록하고 있다. 앞으로 이 보고서는 문화재 수리와 고건축 등의 문화재 학술 연구 작업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원구 기자



한라레문화재단이 19일 개최한 연날리기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30여명이 전통 연을 만들고 있다.

사단법인 한라레문화재단(이사장 심산스님)은 19일 부산 신창농원에 서 외국인과 함께 하는 연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30여명의 외국인들이 함께 해 방패연과 가오리연을 만들고 그 연에 소원을

외국인 30여명 연만들기 연 날리며 즐거운 한때 적어 날리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한국 전통문화를 통해 외국인을 포



3월 26일 전적 목판전문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개관한다. 사진은 완공된 지하 1층 지상 1층의 성보박물관전경.

범어사 성보박물관 3월26일 문연다

삼국유사 등 소장 유물 도록·해설서 펴내 108평 전시실에 선종영가집 등 100여점 전시

3월 26일 문을 여는 전적 목판 전문 박물관인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경선)이 개관을 앞두고 소장 유물의 도록과 해설서를 펴냈다. 성보박물관이 소장 유물 도록을 펴낸 것은 통도사 성보박물관과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이어 세번째다.

21일 선보인 270쪽 분량의 도록에는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불과 의상대사 영정, 삼국유사 등 대표적인 유물 177점의 사진과 개괄적인 설명이 담겨

있다. 유물의 조성 동기와 학술적 의의 등은 해설서에 담았다. 이번 도록과 해설서 발간은 관장 경선스님과 나철화 학예연구위원(前 경성대 한국학 연구소 상임 연구원)이 실무를 맡아 진행했다.

한편 3월 일반에 공개될 성보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108평 규모의 전시실과 50평의 수장고, 학예연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실에서는 범어사 창건기와 선종영가집, 삼국유사 등의 고서와 풍산 스님 유품 등 100여

점이 전시된다. 최근 보물로 지정된 삼국유사 외에도 시지정 문화재 26점을 비롯, 여느 사찰에서는 보기 힘든 곁계 형식의 대형 사천왕상과 큰스님 영정 등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경선 스님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성보박물관이 불자들의 신심을 고양시키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수행은 질병 근본치료에 도움"

삼광사서 한의학 강의 박경일 동의대 교수



"한의학과 불교는 일맥상통합니다. 몸과 마음의 조화가 건강의 핵심이 되듯이 불교의 수행도 그와 같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한의학의 기본입니다."

지난해 9월 개강한 삼광사 한의학 강좌를 맡아 온 박경일(47·사진) 동의대 한의학과 교수는 한의학에 대

한 이해가 불자들의 수행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인과로 인해 모든 일이 생기고 없어지듯, 병 또한 증상 치료보다는 병의 근본 원인을 알아내어 없애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 교수는 "삼광 한의학 과정을 통해 평소의 식생활, 태도, 마음가짐 등 생활 전반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월 종강을 앞두고 있는 삼광 한의학 과정은 한의학의 기본 개념과 이를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게 하는 박 교수의 해박한 강의로 수강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70명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삼광 한의학 과정은 3월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0511808-7111 천미희 기자

84명을 대상으로 초급과정이 실시됐다.

명상 지도자 이선, 관측원씨의 지도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사)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가 마련한 세 번째 교원 직무연수다.

천미희 기자

명상 중급과정 교원 연수 파라미타 부산 청소년협

지난해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명상전문 지도자과정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사)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회장 김석조)는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불교교육대학 강당에서 명상 중급 과정 교원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중급 명상 과정에 참석한 80여명의 교사들은 방향을 맞아 (사)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원 직무연수 특수분야에 참여해 명상의 세계에 폭 빠져들었다.

다양한 명상체험으로 교원들의 자아발견과 교육관 재정립을 위해 마련된 명상전문지도자 과정은 초급과 중급 과정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7일부터 17일까지는 초·중·고 교사

원효불학원 사미승 모집

원효종 최초의 승가대학인 원효불학원(원장 영운스님)은 2년 과정으로 사미승을 모집한다.

대중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원효불학원은 초발심자경문에서부터 치론, 서장, 대승기신론별기 등 학인들이 갖추어야 할 전반적인 교과목을 공부한다.

입학식은 오는 3월 4일 경주시 어림산 복원사 원효불학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전화 054) 745-3646.

박원구 기자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

마산·창원 불교련, 저소득 가정에 성금 전달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지대)는 23일 장원 상공회소 2층 대강당에서 '이웃사랑 자비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저소득 가정을 초청, 성금 2천 만원을 전달하고 위안하는 모임을 가진 이날 행사에는 마.창불교연합회 회장 지대스님, 원로 지원스님을 비롯한 신행단체장과 저소득층 가족 50세대가 함께 했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자비의 장 행사에 이어 나눔의 장 행사에는 노화순 사단법인 금강자비원 이사장, 이점호 경남문화연구원소장 등이 참석해 2003년 마산 창원 불교 활동을 위한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지대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사

회에 실천하는 것이 불교연합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2003년에도 그늘진 곳에 관심을 기울이는 불교연합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천미희 기자

문화재관리 우수기관 문화재청, 고령군 선정

고령군이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령군은 지난해 전통사찰 관유사와 반룡사에 3억여원을 지원하고 관내 문화재 관리 및 보수사업에 60여억원의 남는 자금을 투입하는 등 지역문화 관리에 만전을 기해왔다.

박원구 기자

불국사 석가·다보탑 조각

아사달 추모비 건립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을 조각한 석공 아사달의 추모비가 건립된다.

경주지역 석공들의 모임인 경석동우회는 오는 9월 경주 문화엑스포 기간에 맞춰 아사달을 기념하는 추모재를 개최하고 불국사 부근에 비문과 부조를 새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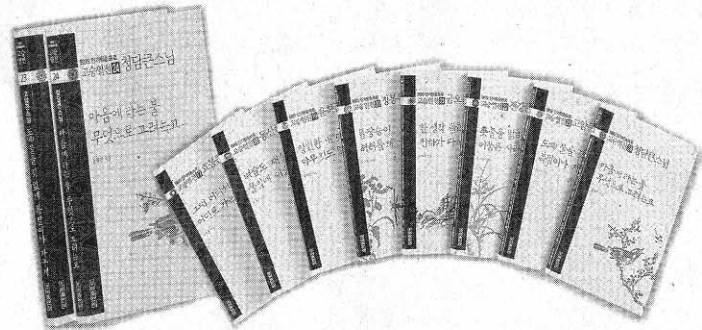
사달 추모비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동우회 관계자는 "추모비는 당간지주 형태의 2개의 화강석 가운데 아사달의 예술혼을 상징하는 검은 돌을 설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추모비 건립과 함께 석공의 스승인 아사달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눈 있는 자 보아라! 여기 고승들의 회통(會通)치는 소리가 있다

소설로 읽어보는 큰스님들의 큰 삶, 은은한 감동의 세계로 독자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BBS 인기방송 프로

고승열전

윤청량 지음 / 신국판 / 각 권 300쪽 내외 / 각 권 값 10,000원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날권으로도 판매합니다.

저자 윤청량은 MBC-TV 개국기념작품 공모에 소설 <末肅>가 당선되었으며, <불교신론> 논설위원을 거쳐 현재 <법보신문> 논설위원, 법정스님이 제창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본부장, 출판연구소 이사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고 다수의 작품들이 있다.

고승열전

- 이도화상·황은 케 몸 태워 온 세상 향기롭게 걸익스님·버리고 사는 마음 그 마음이 부처일세
- 원광법사·인생은 한 트막 꿈이로다
- 지장왕사·백년도 못사는데 무얼 그리 땀내는가
- 원효대사·걸림없이 살게나 물처럼 바람처럼
- 의상대사·마음을 비우시게 온갖 근심 사라지게
- 보덕스님·저희의 눈뜨면 행복이 열리거든
- 진각각사·부처되기 쉽다네 자비롭게 살게나
- 일연르스님·그대 몸안에 있는 여섯 도둑부터 잡으시게
- 원각각사·극락도 지옥도 마음속에 있다네
- 경허르스님·착한 일 많이 하게 그대가 부처일세
- 용성르스님·작은 술씨가 푸른 소나무 되네
- 영호르스님·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네
- 만공르스님·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 괴롭네
- 함암르스님·바구니에 물을 담고 달려가누나
- 만암르스님·마지막 읽는 옷엔 주머니가 없네
- 효봉르스님·그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누나
- 동산르스님·벼슬도 깨물도 풀일에 이룰일세
- 운허르스님·영원한 내 것이란 아무 것도 없네
- 경봉르스님·돌장승이 허허롭게 웃누나
- 금오르스님·한 생각 돌리면 천하가 다 내 것일세
- 전강르스님·꽃불을 밝히면 어둠은 사라진다
- 고암르스님·도(道) 물을 것 없네 복밭이나 가꾸게
- 청담르스님·마음에 타는 불 무엇으로 끄리누고

재미! 감동! 교훈!

당신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위대한 스승들의 포근한 가르침! 전국 불교방송 애청자들을 열광시킨 <고승열전>!

고승들의 선의 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 있음이 책에서 맛볼 수 있게 한다.

- 임도스님(전 포교원장·백양사 청량원) -

<고승열전>을 통하여 불교의 진수와 만나다. 허허롭게 웃는 돌장승이 내 앞에 다가서고, 마음에 타는 불을 끄게 한다.

- 맨날재수필가 -

한 번은 꼭 읽어 보라! 친근하고도 박진감 넘치는 고승들의 진실한 삶의 이야기들. 그 재미와 감동은 손에서 쉽게 책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

- 박경준(동국대 불교학 교수) -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E-mail / woribook@chollian.net